



자바로 실험해 보는
나도 물리 박사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물리탐험대 과학의 역사 자유게시판

교원 어린이 물리 학교 나도 물리 박사는 초·중·고·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원격 학습 시스템입니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그림을 바탕으로 한 이론 설명과 실험하기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자바 실험실, 그리고 얼마나 이해를 하였나 평가하는 마무리 문제까지 초등 물리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격 가상 학습 시스템입니다.

시원스러워 학생들이 질리지 않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이 홈페이지의 장점이다.

나도물리박사
(www.kyowon.co.kr/cyberschool/javaphysics/)

어린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자연과목이 물리. 이 홈페이지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물리를 쉽게 풀어 설명해 놓은 곳이다. 원제목은 '자바로 실험해 보는 나도 물리박사'. 제목 그대로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간단히 해 볼 수 있는 실험들을 소개해 놓았다. 교원그룹에서 만든 이곳은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원격 학습 사이트이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그림을 바탕으로 한 이론 설명과 언제든지 이론에 대해 실험할 수 있는 자바 실험실, 그리고 얼마나 이해를 하였나 평가하는 마무리 문제까지 초등학교 물리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홈페이지는 '물리탐험대', '과학의 역사',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물리탐험대는 공이 멀리 날아가는 원리를 파헤쳐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홈런의 비밀을 찾아라', 달이 빛나는 이유를 밝힌 '지구와 달의 비밀',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 등을 소개해 놓았다. 과학의 역사는 인류 발달 단계에 맞춰 고대, 근대, 현대의 과학사를 정리해 놓았다. 비교적 설명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적당한 그림이 곁들여져 재미있게 볼 수 있다. ㉮

초등학교 자연 5-2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푸르미와 함께 5학년 2학기 '지구의 운동' 단원을 공부해 봅시다.

푸르미의 지구여행

소크웨어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익스플로러 4.0 이상, 600 x 600 해상도에서 최적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든이: 고양시 원당초등학교 교사 정재홍

푸르미의 지구여행
(my.dig.co.kr/Users/monoone/)

푸르미의 지구여행은 초등학교 자연과목 5학년 2학기 과정 가운데 "우주 속의 지구: 지구의 운동"을 토대로 제작한 홈페이지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다보면 저절로 자연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셈이다. 제작은 고양시 원당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정재홍씨가 맡았다. 홈페이지는 '태양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 '낮과 밤', '계절 별자리', '별자리의 변화', '단원평가', '실험실' 등 7가지 코너로 구성돼 있다. 태양의 움직임 코너에서는 하루 동안에 뜨고 지는 태양의 움직임을 재미있는 그림을 보며 학습하는 곳이다. 실제 속웨이버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쓴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별들의 움직임은 태양의 움직임처럼 저녁에 나타나서 새벽에 사라지는 별의 궤적을 쫓는 코너. 우

산과 색종이 등을 이용해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별의 궤적을 추적하는 방법도 소개해 놓았다. 낮과 밤 코너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풀이해 놓았다. 계절 별자리는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자리를 설명해 놓은 코너로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판 제작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별자리의 변화에서는 계절별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까닭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단원평가는 앞서 소개한 코너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곳이다. 따라서 간단한 주관식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실험실은 학생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실험 방법들을 몇가지 정리해 놓은 곳. '반구설치하기', '투명반구에 태양 위치 표시하기',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의 움직임 쫓기', '별자리 우산 만들어 돌리기', '전등으로 지구본 비추기', '별자리판 활용방법' 등이 나와 있다. 그림이 많고 홈페이지 구성이

崔然軫 (한국일보 인터넷부 기자)